



잘 빛은 머리가 형클어 질수록 아름다워



너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못할 이 엔딩

네 숨결이 닿을 듯
가까워





또 다시 온 적막이
너와 날 가워



타오르는 열기 속에 나를 던질게

비밀스럽게 나를 나에게 따라줘



바스라져가던 시선 끝에



넌 내가 꾸민 꿈



손 끝에 스치다 홀연히 날아가

